

코스피지수
1,393.30 (-1.41)코스닥지수
529.11 (0.00)금리 (국고채 3년)
4.02% (+0.15)원·달러 환율
1,252.40원 (+9.40)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칼 빼드나

경영악화 내세워 광주·곡성공장 대규모 인력감축안 제시

6차례 교섭 협상 결렬… 노조측 내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을 들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금호타이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노조 측은 이에 맞서 10일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어서 귀족주가 주목된다.

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009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나온 인력감축을 포함한 사측 안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6차례 교섭 만에 협상을 결렬됐다.

사측은 ▲임금동결 및 정기승호 보류 ▲성과금 지급 불가 ▲학자금,

교통비 등 복리후생 항목 2010년까지 중단 ▲정원 재설정 및 여력인원 전환배치 ▲품질혁신운동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인력구조조정 등 모두 7개 항이다.

사측은 특히 이런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광주와 곡성공장의 규모를 70%로 줄이고 그에 따른 인력 706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인력은 광주와 곡성공장 전체 인원(5천300명)의 13.3%이자 노조원(4천여명) 기준으로는 1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측은 경기침체로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공장가동률이 70%로 1년 만에 30%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해 부득이하게 이 같은 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경영악화의 주원인은 제조원수가 높기 때문인데 제조원과 상승의 주범이 인건비"라며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23%로 동종업체보다 월씬 높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올 1분기에 593억원의 영업적자와 1천91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 7.48%(8만7천

709원) 인상 ▲2008년 추가 성과금 및 2009년 성과금 지급 ▲실질임금 하락분 보전 ▲설비투자 이행, 국내 공장 경쟁력 확보 ▲교통비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측이 인력 구조조정안으로 압박하자 10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고 한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투표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할 경우 파업 투표를 선언하게 된다.

노조의 한 간부는 "회사 인수율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해 협상을 결렬됐다"며 "경영악화는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은행 中企대출 금리 상한제 확산

일반대출 연15~18%, 보증부는 15%…光銀, 대출 가산금리 3%P내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 등 5개 대형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15%로, 일반대출 금리 상한선을 15~18%로 정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을 말한다. 금리 상한선이 도입되거나 있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 등 5개 대형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15%로, 일반대출 금리 상한선을 15~18%로 정했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은행들도 늘고 있다.

광주은행을 비롯해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상 붙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도 보증비율 80%인 보증부대출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떨어져도 가산금리가 5%가 넘지 않도록 했다. 광주은행은 또 새로 취급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0.8~1.5%포인트 낮췄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힘 받은 '경기 바닥론'

통계청, 4월 경기선행 10대지표 '올 플러스'

경기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0대 지표가 7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인구직 비율과 자본재수입액 지표가 마이너스 높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경기 바닥론이 더 힘을 받겠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장을 취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6% 상승한 114.7로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0대 지표 모두가 2002년 3월 이후 7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선행종합지수는 고용, 생산, 소비, 투자, 금융, 무역 등의 향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원자료에서 계절요인을 제거한 뒤 해당 월까지의 3개월 이동평균을 적용해 불규칙 요인도 없던 수치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4월 세부 지표를 보면 구인구직비

율은 37.9%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다. 구인구직비를 전월차는 지난 1월 -5.4%포인트에 이어 2월 -4.0%포인트, 3월 -2.6%포인트 등으로 낙폭은 줄어왔다.

실질 자본재수입액은 7조4천764억 원으로 전월보다 3.7% 증가하며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실질 건설수주액은 전월보다 3.9% 증가한 6조5천701억원으로 넉 달 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났다.

재고순환지표 전월차는 6.6%포인트 상승하며, 종합주가지수는 전월보다 4.0% 오르며 각각 석 달째 플러스를 이어갔고 소비자기대지수는 5.9포인트 오르며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다면 기계수주액은 전월보다 0.9%



4.4%, 3.4%에 이어 4월에는 0.5%로 내려앉았다.

금융기관 유동성의 경우 1월에는 전월 대비 1.9%까지 늘었지만 2~3월에 물려온 1.1%, 0.9%에 이어 4월에는 0.1%까지 물려왔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국가 유공자 할인 정비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는 6월 후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전남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비 할인서비스를 한다.

기아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이달 한 달간 보훈증을 가지고 광천 서비스미터 앞 광주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정비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고처치 및 보험 수리, 외주 수리는 제외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복권 발행액 5% 늘린다

내년 '팝콘'은 격주 발행

내년부터 주점식 인쇄복권인 '팝콘'이 격주로 발행되고 일부 즉석식 인쇄복권의 당첨금이 크게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복권 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내년도 복권 발행목표를 올해 계획치(2조5천527억원)보다 4.7% 늘어난 2조6천720억원으로 잡았다.

/연합뉴스

LED TV 사고 불우이웃도 돋고

삼성전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파브 LED TV를 구매하는 고객의 이름으로 불우이웃에게 1만 원을 전달하는 '사랑의 빛'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LED TV 판매로 조성된 금액은 연말에 불우이웃의 난방비로 지원된다.

기아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이달 한 달간 보훈증을 가지고 광주서비스미터 앞 광주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정비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고처치 및 보험 수리, 외주 수리는 제외된다.

감소율은 2002년 4분기(-1.9%)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주류의 증가율은 -3.6%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담배 출자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동안 빠르게 늘어났던 사교육비 출자는 10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은 통계의 주류에는 업소나 식당에서 판매되는 것은 제외된다.

담배 출액은 1분기에도 1조9천23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9천220억원보다 0.1% 늘어나는데 멀티러 2002년 4분기(-4.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술·담배 지출 줄었다

1분기 3조3천억… 지난해보다 1.5% 감소

경기침체로 지난 1분기의 주류 지출이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담배 출자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동안 빠르게 늘어났던 사교육비 출자는 10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은 통계의 주류에는 업소나 식당에서 판매되는 것은 제외된다.

담배 출액은